

오늘부터 지방자치 분권 대폭 확대된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 주민참여 확대·주민조례발안제·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13일부터 지방자치 분권이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가 핵심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제'를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

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또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지방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돼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 운영한다.

또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의 결 → 보고)를 간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자치법규 67건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인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광주시의회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토록 했다.

김일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역의 강화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대 지역대학 최초 2022년 등록금 동결

광주대학교가 코로나19 경제 상황을 감안해 광주지역 대학 최초로 2022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로써 광주대는 1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대학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학생·학부모가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이와 함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질 높은 교육과정과 학생역량 강화, 취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21년 대학정보공시 재학생 5000명 이상 1만명 이하, 산업대학 제외 기준)에서 호남제주권 1위·전국 3위를 기록한 광주대는 등록금 동결과 함께 다양한 장학금 혜택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내 신입생 '등록금 전액 면제'를 위해 전액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에게는 70만원, 총합격자에게는 40만원의 학업장려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청년취업 등 산업분야 행복시책 시행

중기 인력수급·근로여건 개선

전남도가 도내 산업단지의 열악한 정주·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부담 경감 등에 나서는 산업 분야 행복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산업단지, 조선,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산단 분야에서는 산단근로자의 정주·근로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4개 사업을 실시한다. 82개 산단 청년근로자 5000명에게 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산단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전세버스 운행비를 연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관련 4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삼호, 대한조선 등 조선 기능인력 훈련기관에서 훈련하는 175명에게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3년간 보조한다. 중소조선기업의 경우 용접·도장 등 생산공정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신규 구축에 최대 1억원, 기존시스템 고도화에 최대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3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 대학·연구기관에 구축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 연구소가 없는 소재·부품 기업 20개사에 연구개발비 지원 기업을 기존 5개사에서 올해 20개사로 늘리고, 지원액도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5000명에게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데 각각 월 1만원, 월 2만5000원 한도로 대어비용의 5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나주 선별진료소 방문 김영록 전남사가 1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나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방역대책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대규모 국고사업 예산 확보 '담금질'

추진상황 보고회...에타 통과·대형 국책사업 유치 전략 논의

전남도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대규모 국고를 수반하는 국책사업을 비롯해 신규 예산을 확보한 대형 국비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전남도는 12일 2022년 중점관리 국고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략과 연도별 국비 확보 계획 등 국비 확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문가에서 조사 중인 사업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1091억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678억원이다.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1980억원, 예 면제된 사업은 ▲광양항 모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1374억원이다.

또 에타 신청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 등 사전 절차를 준비 중인 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드 및 배후단지 개발 2180억원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9000억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1246억원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3000억원 ▲전라선 고속도로 3조357억원 등이다.

대규모 국고를 수반하는 사업 기획 중인 국책사업은 ▲국립해상풍력에너지 연구소 설립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

터 구축 ▲인공태양광핵융합소 설립 ▲국가첨단농산업융복합단지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이다.

국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행 초기 단계인 사업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6915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85억원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80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89억원 ▲신안비금~암태 국도2호선 연결도로 3827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6824억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5005억원과 여수 화태~백야 5269억원 ▲나주 급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확장 2855억원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2386억원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신호 체계 개선 종합대책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광주시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교통관리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혼잡구간로 출·퇴근 시간대 신호 체계의 탄력적 조정, 좌회전 금지(2곳), 좌회전 대기차로(4곳) 추가 설치 등이다. 체계가 심한 공사 구간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 활동 등을 펼치고 추가 차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체가 심한 곳은 대남대로 백운광장~주월교차로, 상무중앙로 시청 앞~한국은행 교차로, 회재로 해태아파트~무등시장 구간 등이다. 또 도로 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관광 홍보 활용 슬로건 '천년의 맛과 멋, 전남' BI 제작

전남도가 어려운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전남관광 슬로건으로 '천년의 맛과 멋, 전남'을 선정해 공식 BI(Brand Identity)를 제작해 발표했다. 전남도는 전남 관광의 특색인 '맛있는 음식, 생애의 보고, 풍류와 멋·정감 넘치는 전남'을 잘 표현한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모에 나섰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및 디자인 개발 절차를 거쳐 2321명이 참가한 선호도 조사로 '천년의 맛과 멋, 전남' 슬로건을 확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우체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